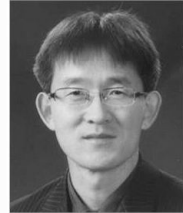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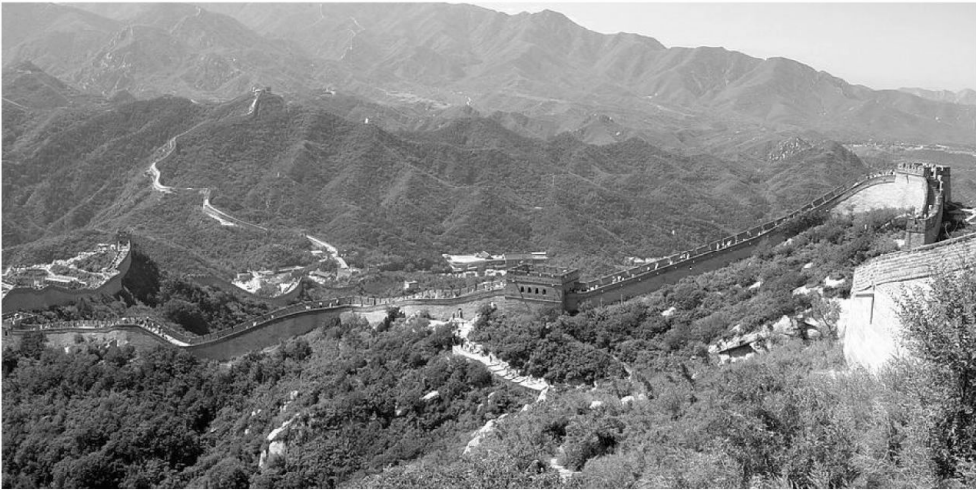


중국의 장성공정(長城工程)



남 의 현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occident1@kangwon.ac.kr)



1. 서론

1) 연구목적

중국에서 만리장성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건축물, 중국을 상징하는 금자탑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상징물인 만큼 1961년 국무원에 의해 제1급 국가문화유산 단위로 지정되었고, 198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역사적 기념비’ ‘세계의 기관(奇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장성’이라는 말은 각종 상품과 국가사업에 항상 수반되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되었다. 그리고 ‘不到長城 非好漢’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장성은 중국인이 가 보아야 할 명소가 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장성은 일종의 군사방어시설이자 전쟁의 산물이다. 나아가 민족과 민족의 국경선이자 갈등의 산물이기도 하다. 장성은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전국시대(戰國時代) 각국이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것이 그 기원이 되었으며 진(秦)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후 각국이 자국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성을 연결하고 보수하여 자국의 장성으로 삼은 것이 오늘날 만리장성이 되었다.

중국인은 장성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중국은 장성의 길이를 지속적으로 늘이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장성의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여 그 측정대상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 학계는 몇 년 동안 중국의 장성 늘리기 발표에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중국이 2002년 동북공정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역사 새로 만들기를 시도했음에도 5년 동안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던 차에 만리장성의 동쪽 시작지점을 산해관에서 압록강으로, 다시 길림과 흑룡강에서도 만리장성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하였기 때문이다.

압록강 유역은 한국사에서 보자면 고구려와 발해 등 한국사와 관련된 수많은 왕조와 민족이 터를 잡은 곳으로, 이곳이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이 된다는 것은 만리장성을 통해 만주사를 중국사로 편입할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다시 2012년 장성의 흔적이 신강을 비롯하여 길림과 흑룡강 지역에서도 발견되었고 고구려의 장성도 만리장성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은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계에 관심을 집중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2002년 2월 동북공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2007년 1월에 5년의 동북프로젝트를 종료하였다. 이 계획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 그 계획을 처음 주도하였고 5년간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책을 쏟아내었지만 중국은 그 과정과 결과물의 성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연구성과를 수집하고 분석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공정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었다.

그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들의 연구과제를 분석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중국 변강사지연구센터에서 2002년 동북공정 1차연도 연구사업에서 기초과제 27건, 응용과제 8건, 번역과제 14건 등을 선정하였으며, 2차년도인 2003년에도 강역사, 민족사, 지방사, 관계사 등 연구계열 과제와 기초 15과제, 번역 14과제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제 중에 확실하게 공개된 것이 기초연구 분야인데 기초연구분야 50여 과제를 분석해 보

면 고조선 연구(1과제), 고구려 연구(5과제), 발해(6과제), 간도 및 한중국경문제(10과제), 원·명·청·민국시대의 강역, 변경통치문제(10), 국경이론 및 민족문제연구(11과제), 러시아 문제(7과제)가 결과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초기 연구과제와 그 결과물을 놓고 본다면 결국 동북공정은 한국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총체적인 것,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한 국경문제 등이 중심에 놓여있는 역사재편 사업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대부분 과제의 방향이 주변국과의 국경문제에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역사 속 주변국 내지 주변세력과의 국경 및 변경문제와 현재의 국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과의 변경이론, 국경이론, 변속이론 등을 정립하는 과제들이 고구려나 발해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의 문제가 고구려나 발해의 문제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7과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매우 주목된다. 이것 또한 흑룡강 유역을 놓고 명청시대 중국이 주장하는 강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강역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현재에도 흑룡강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전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중국은 여진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던 명대 길림과 흑룡강 지역을 명의 강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청이 명을 멸망시킨 후 흑룡강 지역에 이르기까지 누르하치가 이 지역의 여진을 정복하거나 복속하였고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유조변을 설치하면서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봉금지대지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흑룡강 일대도 청의 역사적인 강역이었다고 주장한다.¹⁾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명대의 여진지역은 명의 영향력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미쳤으며 청대 흑룡강 유역의 여진은 누르하치에게 영토적으로 복속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양국의 국경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²⁾

얼핏 보면 위에서 언급한 중국과 한국,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제는 만리장성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동북공정의 과제 속에는 만리장성을 연구한 과제는 없다. 만리장성은 역사왜곡과는 다르게 보이는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 2005~2015)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리장성 보호공정 사업은 역사왜곡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중국은 2002년 동

1) 林榮貴 主編, 『中國古代疆域史』上·下 4卷本, 黑龍江教育出版社, 2007.

2) 黑龍江省哲學社會科學院第三室譯, 『滿洲人在東北-十七世紀』, 商務印書館, 1976.

북공정을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만리장성 보호 및 관리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보호공정사업을 시작하였다. 장성보호공정 사업은 만리장성을 구성하는 모든 부속물 즉 성벽, 적루, 관성, 영성, 위소, 봉화대 등 모든 성의 부속물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역대 장성의 총 길이를 추산하는 작업도 이 사업 속에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연구를 통해 대략 장성의 총길이가 5만 km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장성보존사업이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역사왜곡부분도 관련되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중요한 만리장성 연구사의 흐름과 저작들

장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기록들은 정사류에 해당하는 『사기(史記)』, 『한서(漢書)』, 『위서(魏書)』 등과 『원화군현도지(元和郡縣圖志)』,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起要)』 그리고 각종 지방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간략하거나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근대 서구적인 학문이 도입되고서야 장성을 연구한 전문적인 연구물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저작으로는 청말민초의 양수경(楊守敬)의 『역대여지연혁험요도(歷代輿地沿革險要圖)』를 언급할 수 있다. 이 저작은 공동저작으로 전국시대, 진나라, 명대 장성을 기록하였으며 한나라, 북조시대, 수나라 시대의 장성은 생략되어 있다. 중국에서 8권 본으로 출간된 담기양(譚基驤)의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의 역대 장성 부분에 대한 묘사는 양수경의 『역대여지연혁험요도』를 참고해서 저술했다는 것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양수경의 『역대여지연혁험요도』는 명나라 장성을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미 요동변장을 장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구별하였고 이것이 현재 중국역사지도집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즉 요동변장을 일종의 목책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요동변장을 만리장성과 동일시하는 중국학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 기록이 130여 년전에 출판되었다는데 큰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후 왕국량(王國良)의 『중국장성연혁고(中國長城沿革考)』가 192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기존의 애매한 지리적 표현을 바로잡고 조사를 통해 장성의 위치를 바로잡았으며 고지명 등을 고증하여 오늘날의 지명과 대조하여 그 위치를 밝혔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다시 1940년대에 수봉비(壽鵬飛)의 『역대장성고(歷代長城考)』가 출판되었다. 이 저작은 고대의 장성을 고증하는데 공력을 기울였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만리장성은 중국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

후에는 장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1961년 산해관과 팔달령이 전국중점 문물 보호단위가 되면서 그 유지보수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업과 함께 장성학(長城學)이라는 학문이 등장하였는데 장성학은 장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으로 장성에 대한 기본조사, 장성과 관련된 사료의 조사, 편찬 그리고 정리, 장성과 군사학, 장성과 경제 및 노동과의 관계, 장성과 역사지리학, 장성과 민족, 장성과 건축학과의 관계 등 장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그 연구 범주에 넣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장유화(張維華)의 『중국장성건치고(中國長城建置考)』가 출판되었다. 이 저술은 일종의 논문형식으로 장성을 서술한 것으로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장성유적조사보고집(中國長城遺蹟調查報告集)』을 들 수 있는데 1981년에 출판되었다. 이 저작은 보고서 형식으로 모두 1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명대 요동변장을 장성의 관점에서 서술한 유겸(劉謙)의 『명요동진장성급방어고(明遼東鎮長城及防禦考)』가 있다. 이 저작은 앞서 언급한 양수경의 저작과는 달리 명 요동변장을 만리장성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요동변장을 만리장성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전문학술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유적 사진과 지도 등을 통해 요동진 끝 명대 요동도사를 방어하는 방어구조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³⁾ 이후에도 고봉산 등의 『가옥관급명장성(嘉峪關及明長城)』, 『소록하유역한대장성고찰보고(疏勒河流域漢代長城考察報告)』, 『제장성(齊長城)』 등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성연구성과들을 종합하여 편찬된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은 각 시대의 장성을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장성의 방향과 위치를 시각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2004년에는 장성연구에 필요한 이론을 정리한 동요회(董耀會)의 『와합집(瓦合集)-長城研究文論』과 景愛의 『中國長城史』 등 다수의 관련서적이 이후 출판되어 장성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이 장성학을 만들고 장성보호공정을 시작한 이래 그들의 연구성과물들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장성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장성이 발견될 때 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대서특필하는 내용 중 역사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① 요금시대의 계호(界壕)를 장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② 명대 요동변장을 만리장성으로 보는 것, ③ 요동변장이 끝나는 지점을 압록강으로 파악하고 그 곳을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으로 주장하는 것, ④ 고구려성을 만리장성에 포함시킨 것, ⑤ 만리장성의 흔적이 길림과 흑룡강, 그리고 신강에서 출토되었다는 주장 등은 중국의 장성학이 낸 결론 중 재검토 되어야 할 것들이다. 차후에 연구되어야 할 부분

3) 요동도사 지배력의 한계를 정리한 논문으로는 南義鉉의 「遼東都司 對外膨脹의 限界에 대한 考察」(『明清史研究』 제 27집, 명청사학회, 2007)을 들 수 있다.

이지만 명대 요동변장(遼東邊牆)을 만리장성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이것을 이어받아 형성된 청대의 유조변(柳條邊)도 만리장성의 범주 속에 넣어야만 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더구나 한국사적 관점에서 만리장성이 만주 전역에서 발견된다는 중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정설화된다면 중국의 의도대로 만주의 모든 역사는 만리장성 속에 묻히게 되는 운명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장성보호공정은 단순히 장성의 유적을 보호하고 관광자원화한다는 목적 이외에 만주의 역사를 중국화시키고,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명청시대 조선과 명·청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고착화시키려는 또 다른 왜곡의 역사가 숨어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만리장성의 연장론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문제점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만리장성이란 무엇인가

1) 장성수축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쇠퇴

만리장성 축조의 역사는 길다. 사마천(司馬遷)은 그의 명저 『사기(史記)』에서 만리장성을 언급하였는데 진(秦)나라 시대의 장성을 ‘임조(臨洮)로부터 요동(遼東)까지 연결된 것이 만여리’라고 하여 처음으로 만리와 장성이라는 용어를 썼다. 물론 여기에서 만리라는 것은 ‘매우 길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금도 만리장성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장성의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시대의 계호(界壕, 또는 邊壕라고도 함)나 명대 요동변장, 그리고 고구려 천리장성 등을 만리장성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장성의 길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나라의 장성은 5천km, 한나라의 장성은 1만km, 명나라의 장성은 6천km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고 개념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문헌으로부터의 추정과 실제 조사를 조합해 역대의 장성 모두를 합산해 보면 그 길이가 5만km에 이른다는 설도 있다. 최근 중국은 광명일보를 통해 공식적인 장성의 총길이는 2만 1196.18km라고 발표했다.

처음 장성은 자연 지형을 따라 축조되었기 때문에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산과 강을 만리장성으로 인정하느냐 여부 역시 장성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그 측량대상과 방법에 따라 만리장성의 길이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전국시대가 되자 각국은 필요에 따라 자국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장성을 축조하기 시

〈표 1〉 역대장성 총길이

번호	장성명칭	총길이(km)	소속장성
1	전국시대의 장성	8,186	제, 초, 위, 조, 연 등 장성과 기타 장성
2	진시황장성	7,860	황하, 음산 등 장성
3	한대장성	8,057	외장성 포함
4	북위장성	1,602	畿上塞圍, 泰上長城
5	동위·북제장성	910	武定, 天保 장성
6	수대장성	1,022.25	수문제, 수양제 장성
7	당대장성	464	고구려 장성, 청해 장성
8	요대장성	5	鎮東海口長城
9	금대장성	213	연변, 목단강 장성
10	명대장성	5,787.78	9변진 장성
계		34,107.93	

※ 2006년 장성연구 전문학술서에 나온 장성의 총길이는 3만 4천여km이다. 2012년에 광명일보에 발표된 2만 1천여 km보다 훨씬 길다. 2006년에 이미 요금시대의 장성과 고구려장성이 만리장성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명대장성 중 요동변장도 만리장성에 들어가 있다. 요동변장에 기초한 청대 유조변은 아직 장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유조변이 요·금대의 계호와 비슷하므로 장차 장성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景愛,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2006)

작하였고, 6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기존 6국의 장성을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공사를 통해 장성을 수축했다.

‘왜 장성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박한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은 중화민족이 북방민족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북경 외곽에서 보는 길게 연결된 장대한 벽돌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리장성이 생기기 전 강력한 도시국가 시대와 도시국가를 병합한 영토국가 시대에는 도시를 둘러싸는 방식으로 그 영토를 둘러쌌었다. 이것이 전국시대 국가의 영역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며 진시황제 역시 자국의 광대한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이것을 확장하고 방어라인으로서 구축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이 되었으며, 이것은 다음 왕조인 한(漢)에서는 더 먼 서쪽까지 연결되었다.

그러나 당시 만리장성은 벽돌로 축조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견고한 장성은 아니었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 한(漢)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대동(大同) 부근의 백등산(白登山)에서 포위되어 흉노의 포로가 되는 등의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장성 수축에 관심을 보였다. 결국 한 무제(武帝)시기에 이르러 흉노에 대한 적극적 공세와 함께 장성수축을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무제는 서역으로 가는 교통로와 거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한나라 시대에는 진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로 판축 공법으로 장성을 수축하였다.

북위(北魏)시대의 선비족(鮮卑族)은 고향인 대동을 버리고 낙양(洛陽)으로 천도하였고

초기 수도인 대동 북쪽에 옥야진(沃野鎮), 회삭진(懷朔鎮), 무천진(武川鎮), 무명진(武冥鎮), 유연진(柔玄鎮), 회황진(懷荒鎮) 등 6진을 중심으로 하는 장성을 수축하였다. 이것은 유목민이 유연(柔然)과 5호(胡) 등 또 다른 북방민족을 방어하기 위해 수축했다는 것에서 장성의 또 다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당(唐)나라는 기존의 장성선을 넘어 도호부(都護府) 등 간접 지배 거점을 만들어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족으로 국가를 세운 송(宋)나라는 960년에 건국됨으로써 916년에 왕조를 연 요(遼)나라에게 화북과 장성지대를 빼앗기는 운명을 맞이했다. 더구나 북방민족에 비해 군사적 열세에 처해 연운 16주(燕雲十六州)와 장성을 상실했다. 결국 전연의 맹과 같은 불평등 화의로 그들에게 보내는 세폐(매년의 공물)에 의해 왕조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했다.

요(遼), 금(金) 등의 정복왕조는 북경 등 연운 16주를 차지하며 등장하였는데 즉 요 · 금 · 원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성 수축의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장성을 수축할 필요가 없었던, 장성이 방치되었던 시대도 존재했던 것이다. 원(元)제국이 초원으로 물러간 이후 장강(長江) 유역에서 세력을 키워 등장한 명(明)제국은 장성 수축에서 가장 획기적인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북부의 몽골족과 동부의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 장성 수축과 정비에 가장 많은 에너지와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팔달령 등에서 볼 수 있는 연결된 벽돌식 장성을 탄생시켰다. 달리 말하면 명시기는 몽골세력과 동북의 여진족을 막아야 하는 가장 큰 고난에 찬 시대이기도 하였다. 명나라 시기는 최대 장성수축의 시대이자 마지막으로 장성수축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시기였다.

2) 장성의 개념

그렇다면 이러한 장성의 역사 이전에 장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우선 논의되어야 장성 연장론의 허구와 진위를 가리는 중요한 표준이 생길 것이다. 진나라는 통일 이후 임조에서 요동까지 중국 북방을 향해 지나간 장성을 수축하였는데 인력과 물력에서 공사가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축성재료는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장소에 따라서 돌덩어리, 그것이 없으면 황토를 이용한 관축공법 등을 이용하며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견고한 그리고 연결된 벽돌장성의 모습은 고대에 볼 수 없었던 명대 후반에 나타났던 신작품이었던 것이다.

역대의 왕조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전대(前代)의 장성은 당연히 이용하였으며 새로운 방어 라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의 장성을 기초로 파수와 봉화를 올리기 위해 정장(亭障)이

나 돈대(墩臺)·보(堡)라는 높은 대를 수축하였다. 그리고 그 ‘점’을 나란히 하여 방어선을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늘 방어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에만 그 필요성에서 ‘선’으로서의 성벽이 구축되었던 것이다. 즉 이러한 선이 성벽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었던 시대가 바로 명나라였던 것이다.

명초의 장성은 거용관(居庸關), 산해관(山海關), 가옥관(嘉峪關) 등으로 유명한 관성(關城)이라 부르는 대규모의 군사거점, 그리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보(堡), 영(營) 등을 점(點)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양익(兩翼)을 방어하기 위해 벽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때문에 벽은 보조시설에 지나지 않았고 높이도 3미터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몽골의 침입이 빈번해지고 강력해지자 명나라는 관성과 보·영 사이에 종래보다 훨씬 높고 견고한 연결된 일선(一線)의 성벽을 축조하고 이 성벽을 방어의 주체로 삼았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대와 봉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연결된 높은 벽 위에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동시에 후방의 진(鎭)으로부터 군대를 투입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변방의 성벽에 배치하는 병력수를 감소시키는 한편 방어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안정을 기대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은 장성의 범주에 전국시대의 장성, 진(秦)의 장성, 한(漢)의 장성, 북위(北魏)의 장성, 수(隋)·당(唐)의 장성, 고구려(高句麗) 및 발해(渤海) 장성, 요(遼)의 장성, 금(金)의 장성, 명(明)의 장성 및 요동변장(遼東邊牆)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청대 유조변(柳條邊)은 장성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미리 언급하자면 명대 요동에 설치된 요동변장은 일선의 성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험세를 이용하거나 목책과 흙 등을 이용하였고 요충지에만 성벽 등 요새를 수축하는 방어선의 개념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산해관 서쪽과 동일한 만리장성으로 볼 수는 없다.

요·금시대의 변호(邊壕) 역시 마찬가지다. 장성의 기본개념은 지표면에 석재나 돌, 벽돌 등을 이용해 견고한 담을 축조해 연결하는 것이라면 변호는 일반적으로 지하로 호를 파는 방식의 ‘구참(溝塹)’의 형식으로 기후나 비 등에 의해 손쉽게 무너지고 메워질 경우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만리장성의 구조와는 분명하게 다르다. 또한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변호는 쉽게 최소한의 방어기능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만리장성과는 기능과 구조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성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학계의 거장 왕국유 역시 금나라의 성을 장성이라 부르지 않고 계호(界壕)라고 부르고 “掘地爲溝塹,以限戎馬之足”으로 표현한 『金史』의 내용을 인용하였던 것이다.⁴⁾

4) 『金史』內族襄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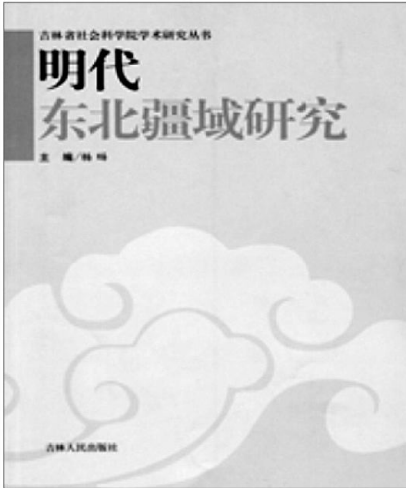
변호는 만리장성이 아니라 변호나 계호로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장성은 기본적으로 군사방어시설이면서 성벽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요즘시대의 변호는 경계선을 표시하는 기능이 강해 장성과는 기본적으로 성격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변호는 일종의 변새(邊塞)라고 할 수 있다. 변호는 견고한 벽돌이나 홍토를 다지는 판축을 이용해 쌓아 올린 성벽이 아니다. 일종의 땅을 파서 올린 흙 언덕과 같은 것으로 요즘시대에 장성 북쪽의 초원지대에 자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일종의 경계표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변호는 갑작스러운 폭우나 바람과 추위 등 기후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붕괴되는 경우가 많아 군사방어적인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요나라의 경우 700여 km에 달하는 변호를 수축했으며 금나라 역시 내몽고 지역에 몽고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변호를 수축했는데 그 길이가 3,459km에 달하였다. 길이는 길지만 장성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만약에 변호를 장성으로 부른다면 청대의 유조변(柳條邊) 역시 장성이 되어야 하는데 역대 역사서에 유조변을 장성으로 표현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장성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장성선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적인 협세이다. 일반적으로 고대부터 자연의 험준한 요새를 빈번하게 이용하여 적의 접근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장성을 수축하는 과정에서도 성벽과 같은 인공물이 아닌 강과 산, 절벽과 같은 자연적 지세를 이용하여 만리장성을 구성하였는데, 이것을 만리장성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만리장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리장성은 인공적인 구조물, 방어의 군사적 기능, 그리고 연결된 선이라는 요건을 구성해야 하는데, 자연적인 협세는 인공적인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연적인 협세는 자연적인 것일 뿐이며 장성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인공이 가해진 만리장성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자연적인 지세를 많이 이용한 명대 요동변장 역시 만리장성이 될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또한 험준한 산속의 언덕이나 고개에 적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관(關) 역시 만리장성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고개를 넘는 중요한 길목에 양쪽의 산을 끼고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길을 직접 통제하는 군사시설물은 명대 요동변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산해관 서쪽 지역과는 달리 명대 요동변장은 만리장성처럼 벽돌로 연결한 일선의 벽이 아니라 적이 출몰하기 쉬운 지역에 성보와 같은 크고 작은 군사시설물을 축조한 일종의 방어선이였다. 산해관에서 가옥관으로 연결되는 장성과는 또 다른 형태의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1】 2008년 9월에 출판된 『명대동북강역연구』의 기본적인 내용은 명과 조선의 국경선은 두만강과 압록강이며 명나라가 흑룡강 유역까지 강역으로 삼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압록강이 명과 조선의 경계가 되는 이유는 명이 만리장성을 압록강에 설치해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고대에는 위급한 상황을 주로 변방과 내지에 설치된 봉화대 곧 봉수를 통해 알렸다. 이것은 봉화대가 장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하며 장성과 분리할 수 없는 장성의 부속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지대가 아닌 지역에서 봉수 지점을 연결하여 장성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성의 개념에 봉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좀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봉수는 봉화대, 봉대, 또는 돈대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토축이나 석재를 이용하여 적절한 높이로 대를 쌓고 불을 피워 불과 연기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군사시설에 불과할 뿐이다. 한나라 이후 수축한 장성에는 일반적으로 봉수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장성 선상에 있지 않은 봉수를 장성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즉 장성 선상에 설치되지 않은 봉화대 역시 장성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만리장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봉수대가 있지만, 봉수대가 있는 곳에 반드시 만리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성이라고 할 수 없는 요동변장이나 유조변에 설치된 봉화는 만리장성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성의 개념으로 보자면 명대 요동변장과 이를 계승하여 축조된 청대의 유조변은 만리장성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⁵⁾ 명대는 장성 지역에 9개의 중진을 두고 이를 구변진(九邊鎮)이라고 불렀다.⁶⁾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동진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요동변장이다. 중국은 이전의 모든 성과물을 무시하고 80년대 이후 요동변장을 만리장성으로 파악하고 요동변장이 끝나는 지점이 압록강변의 호산으로 파악하고 이곳을 장성의 동단기점 곧 동쪽 시작점이라고 주장하였다.

5) 景愛,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2006, p.347. 명대는 장성 지역에 9개의 중진을 설치하고 이를 9邊鎮이라고 불렀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동진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요동변장이다. 중국은 이전의 모든 성과물을 무시하고 80년대 이후 요동변장을 만리장성으로 파악하고 요동변장이 끝나는 지점을 압록강변의 호산으로 파악하고 이곳을 장성의 동단기점 곧 동쪽 시작점이라고 주장하였다.

6)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술저서가 劉謙의 『明遼東鎮長城及防御考(명요동진장성급방어고)』(문물출판사, 1989)이다.

3. 왜곡된 만리장성 연장론-명 요동변장과 강연대보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중국 만리장성 연장론의 1차적인 근거는 명대 요동변장이다. 중국은 무엇을 근거로 압록강에 만리장성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요동 변장의 축조와 그 마지막 전초기지였던 압록강변의 강연대보(江沿臺堡)에 있다.

명대 장성 수축사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요동변장(遼東邊牆)의 축조라고 할 수 있다. 명나라는 한족 왕조로는 드물게 요동의 일부를 장기간 점령하여 변장중심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요동도사(遼東都司)와 같은 군정기구를 요동에 세웠다.⁷⁾ 요동도사의 관할범위는 오늘날의 요령성 지역보다 조금 작은 범위였다. 명대 만리장성을 구변진(九邊鎮)이라 하는데 그 중 요동진은 가장 동쪽이었다.⁸⁾ 이 9개의 중진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형성하고 북변의 몽골과 동부의 여진을 방어하고 있었다. 요동진의 중심은 요양(지금의 遼寧省 遼陽市)이었으며 이곳에 군정기구인 요동도사의 치소가 있었다.⁹⁾ 명나라가 원나라를 교체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흔히 원·명교체(元明交替)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중원에서는 원나라를 명나라가 교체했지만 중원에서 패퇴한 몽골족은 초원으로 물러가 명나라와 대치하면서 남북국시대를 이루고 있었다. 몽골은 중원에서 물러갔지만 초원을 차지하며 명나라가 방어해야 할 최대의 강적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요동의 동부에서는 여진족이 서서히 힘을 키워 나가고 있어서 이들 역시 명이 방어해야 할 중요한 세력이었다.

이처럼 명나라 시기는 북부와 동부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시기로 명의 장성수축은 불가피하였다. 장성 방어선 중 산해관에서 압록강 방면으로 설치한 요동변장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명나라는 영락연간(永樂年間, 1403~1424)에 몽골친정과 여진초무 등의 적극적 대외정책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영락제 사후 국가의 대외전략은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되어 축성 중심의 방어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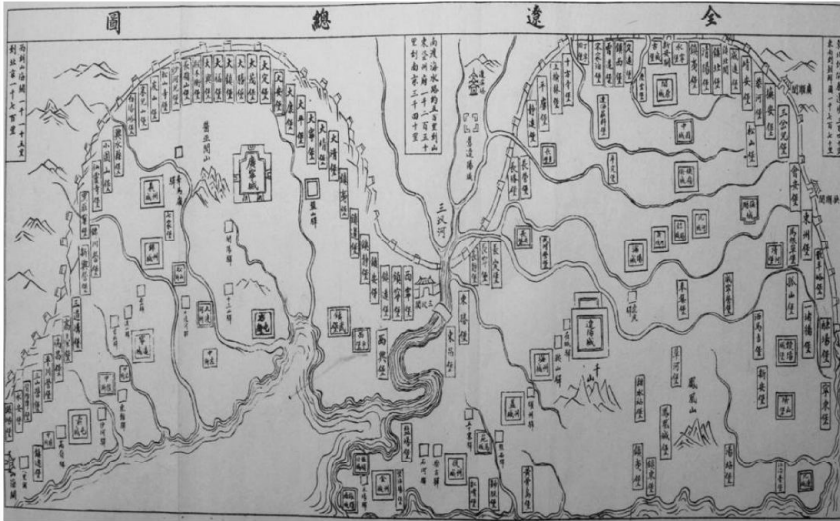
7) 남의현,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2008.

8) 9변진은 동쪽에서부터 살펴보면, 요동진(遼東鎮), 계진(?鎮), 선부진(宣府鎮), 대동진(大同鎮), 산서진(山西鎮), 연수진(延綏鎮), 영하진(寧夏鎮), 고원진(固原鎮), 감숙진(甘肅鎮) 등이다.

9) 요동진은 산해관의 북쪽 오명구(吾名口)에서 시작하여 발해만을 따라 동쪽으로 연결되었는데, 요동도사의 중심 도시인 요양, 심양, 개원, 무순, 본계, 봉황산 등을 포함하였다.

10) 영락연간 명나라는 영락황제가 직접 참여하는 5차의 몽골친정을 야심차게 시도하였지만 큰 수확없이 끝이 나면서 공세적 국면을 마감하였다. 이후 정통연간(正統年間)에는 토목보의 변(土木堡의 變)에서 명 황제가 몽골의 포로가 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어 더이상 몽골에 대한 무력정벌을 감행하지 못했다. 명나라는 몽골세력을 제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만리장성과 같은 축성을 통해 수세적 방어의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영락연간 이후 여진에 대한 통제력도 점차 이완되면서 초기 여진초무와 같은 장기적인 전략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세적 방어의 전환은 만리장성 수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은 요동에도 파급되어 요동변장을 수축하였던 것이다.

요동변장은 대부분 자연지세를 이용했기 때문에 성보와 성보를 일선의 벽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지 못했다. 고립된 성보와 성보 사이에는 봉화대나 돈대 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봉화대나 돈대는 연결된 성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방어선 상에 설치되어 산해관 지역의 연결된 성벽에 기초한 장성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요동변장을 구성하는 것은 일선으로 연결된 성벽이 아니라 군사적 거점에 설치된 조그만 전초기지들이었다.



【그림 2】『全遼志』에 보이는 명대 요동변장 장성의 모양이 보(堡)와 봉화대 중심으로 되어있으며 벽돌로 연결된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도 우측 아래쪽이 압록강인데 변장선이 압록강변의 강연대바로 연결되고 있지도 않다. 즉 요동변장은 만리장성이 될 수 없으며 압록강으로 연결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요동변장의 전체 형태는 대체로 3지역 즉 서단변장(西段邊牆)¹¹⁾, 요하투변장(遼河套邊牆),¹²⁾ 동단변장(東段邊牆)으로 구분된다.¹³⁾ 이러한 요동변장의 만리장성 여부를 설명하기에 앞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湯站堡-鎮江堡(구련성), 險山堡-大甸子堡-寧東堡-江沿臺堡 등 요동변장의 동부 기지들은 명의 관할지역이 아니라 여진이 자주 출몰하는 조선과 명의 국경중립 시대에 세워진 전초기지들이었다. 이 지역은 명이 군사력을 이용해 성보를 수축했지만 명의 행정력이 미치거나 지속적으로 명군이 주둔한 직접적인 관할지역이 아니었다. 당시

- 11) 서단변장은 요서변장(遼西邊牆)이라고도 하는데, 형성된 관할 堡는 鐵場堡-永安堡-背陰章堡-新興營堡-三山營堡-平山營堡-瑞昌堡-高臺堡-三道溝堡-新興營堡-錦川營堡-黑庄窩堡-仙靈寺堡-小團山堡-興水縣堡-白塔峪堡-寒兒山堡-灰山堡-松山寺堡-長嶺山堡-沙河兒堡-樅木沖堡-大興堡-大福堡-大鎮堡-大勝堡-大茂堡-大定堡-大康堡-大平堡-大寧堡-大安堡-大靖堡-大清堡-鎮夷堡-鎮邊堡-鎮靖堡-鎮安堡 등이다.
- 12) 요하투 변장을 연결되는 주요 보는 鎮遠堡-鎮寧堡-西興堡-鎮武堡-西平堡-西寧堡-東昌堡-東勝堡-長靜堡-長寧堡-長定堡-長安堡-長勝堡-長營堡-長勇堡-武靜營堡-奉集堡-靖遠堡-平虜堡-上榆林堡-十方寺堡-丁字泊堡-宋家泊堡-會遲堡-鎮西堡-定遠堡-殷家窩堡-慶雲堡-古城堡-永寧堡-鎮夷堡-清陽堡-鎮北堡-威遠堡 등이다.
- 13) 동단변장은 靖安堡-松山堡-柴河堡-撫安堡-花抱沖堡-三?兒堡-會安堡-撫順所城堡-東州堡-馬根單堡-散羊峪堡-清河堡-堵牆堡-鹹場堡-孤山堡-酒馬吉堡-?陽堡-新安堡-鳳凰城-湯站堡-鎮江堡로 연결되고 또한 압록강 변으로 險山堡-大甸子堡-寧東堡-江沿臺堡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중 강연대보가 중국이 동단기점이라고 주장하는 현재 호산산성의 근거가 되는 명대 전초기지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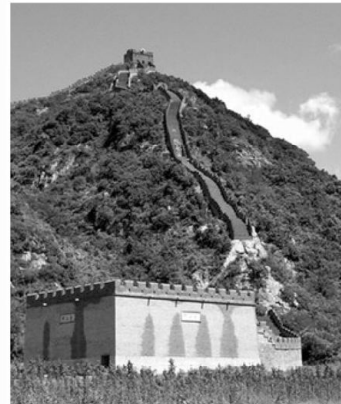
에는 국경선의 개념과 국경지대의 개념이 같이 사용되던 시대였다. 압록강에서 봉황성에 이르는 지역은 명과 조선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국경완충지대에 해당되었다. 이곳은 주로 요동팔참이라 불렸으며 이미 학계에 연구성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¹⁴⁾

갈수록 강도와 횡수를 더해가는 북부의 몽골과 동부의 여진족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변장방어선은 강과 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산해관에서 요서지방을 거쳐 개원에 이르고 다시 무순관(撫順關), 아골관(鴉鶻關), 애양보(靉陽堡), 草河堡(초하보), 탕참보(湯站堡), 강연대보(江沿臺堡)와 같은 전초기지를 수축해 나가며 압록강에 강연대보와 같은 전초기지를 수축하기에 이르렀다.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연대보가 위치한 곳은 압록강변의 국경중립지대에 해당된다. 이것은 중후기로 갈수록 약탈을 빈번하게 하던 여진을 견제하고 조선과의 교류를 지속시키기 위해 세운 일종의 조그만 성보였으며 만리장성은 아니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지금 중국 조정에서 탕참(湯站)과 의주(義州) 사이에 새로 강연대보(江沿臺堡)를 설치하였는데, 보관(堡官)이 ‘이제부터는 사신들이 오갈 때 탕참에 알리지 말고 본보(本堡)로 직통(直通)할 것을 본국에 이미 이자(移咨)하였다.’¹⁵⁾

이 강연대보가 지금 호산장성 곧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90년대부터 꾸준히 산등성이를 따라 벽돌식 장성이 신축되었고 지금은 유명한 요동의 장성관광지로 바뀌었다.¹⁶⁾ 그러나 명대의 호산산성에서는 벽돌성의 흔적이 발견된 적이 없으며 명대에 강연대보가 설치되어 소수의 군대가 주둔하여 적을 감시하는 소규모 성에 불과할 뿐이었다. 현재와 같은 일선으로 연결된 벽돌성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호산장성은 1990년 이후 중국 정부가 장성사업의 일환으로 장성지대와 같은 형태로 그 구조를 변형시켜 벽돌장성으로 신축한 현대판 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압록강변 호산의 모습. 원래 고구려 석성이 있던 자리지만 1990대에 들어서면서 산해관과 같은 벽돌식 장성을 신축해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도 동단기점임을 알리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입구에 설치되고 있다.

14) 柳在春, 「15세기 명의 동팔참 지역 점거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제18집, 조선시대사학회, 2001.

15) 『明宗實錄』卷9, 明宗 4年 1月 辛卯.

16) 호산산성이 있는 호산(虎山)은 호두산(虎頭山), 호이산(虎耳山), 마이산(馬耳山) 등으로도 불린다. 호산은 행정구역상 요녕성(遼寧省) 단둥시(丹東市) 관진현(寬甸縣) 호산향(虎山鄉) 경내에 위치한다. 호산은 압록강 변에 접한 조선으로 통하는 길목이었고, 또한 여진을 방어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그림 4】 압록강변의 호산장성입구. 옛 고구려 성터이지만 현재는 호산장성으로 변하여 건축물이 신축되고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으로 홍보되고 있다.

4. 청대 유조변과 만리장성

명이 망하고 청이 건국되자 요동의 만주족은 중원을 통치하기 위해 모두 입관하였다. 청나라는 입관 이후 순치·강희연간에 요령과 길림 지역에 유조변을 설치하였다. 유조변은 일반적으로 서쪽 산해관 부근에서 시작해서 동쪽 길림성 송화강 변 북쪽 선창(船廠)에서 끝나며 북으로는 위원보(威遠堡)에서 출발하여 남쪽 봉황산에 멈추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¹⁷⁾ 유조변은 두 개의 변책(邊柵) 곧 노변(老邊)과 신변(新邊)으로 구분되는데 노변은 명대 요동변장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며 신변은 청 건국 이후 다시 설치한 것이다. 이 두 노선이 유조변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유조변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기록인 『유변기략(柳邊紀略)』 역시 노변에 해당하는 유조변(요양과 심양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요령성 지역)은 판도내(版圖內)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신변에 해당하는 유조변 안쪽은 무판도(無版圖) 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청대 봉금지대를 무판도로 청대의 사료가 서술하고 있어 그 성격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청대 유조변의 상당 부분은 명대 요동변장에 기초하고 있는데, 요동변장은 이미 1980년에 학술적으로 장성으로 불렸다. 그렇다면 이 명대 요동변장이 이어 받아 형성된 유조변은 만리장성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¹⁸⁾ 그런 의미에서 유조변이 만리장성이 될 수 있

17) 楊賓, 『柳邊紀略』 卷1.

18) 柳條邊의 수축은 문헌을 살펴보면 ‘버드나무를 꺾어 울타리로 만들다(折柳樊之)’, ‘울타리를 끼워 넣어 경계로 삼다(插籬爲邊)’, ‘버드나무를 끼워 넣어 경계로 삼다(插柳爲界)’, ‘가시나무를 엮다(編荊爲之)’, ‘끈을 연결해 목책을 늘어놓다(結繩列柵)’ 등 갖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柳條邊은 그 명칭 또한 柳條關, 柳城, 柳邊, 條子邊, 邊?, 관방기록에는 ‘盛京邊牆’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될 것이며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이는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조변의 성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중국의 장성 연장론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유조변이 만리장성이라면 그 아래쪽 지역은 당연히 청조의 판도가 되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은 내지와 외지를 구분하는 국경선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성수축의 역사는 명나라의 멸망과 함께 끝이 났다. 청나라는 건국 후 중원을 통치하기 위해 여진부족을 거느리고 대부분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들이 태어나고 국가를 처음 세웠던 만주지역은 인구가 부족한 무주공산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그들이 발흥한 지역이자 수많은 특산물이 나는 경제적인 보고였다. 이 지역을 보호하고 만주족의 경제적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높은 성벽은 필요가 없었다. 높은 성벽을 쌓아 방어해야 할 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흙 언덕 정도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유조변이 탄생하였다.

청대 유조변은 금나라 시대의 변호(邊壕)와 비슷한 형태로 땅을 파 호를 만들고 파낸 흙으로 언덕을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 계호와 좀 다른 것은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조변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¹⁹⁾ 버드나무를 심은 것은 흙 언덕의 유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유조변은 형태와 기능에서 遼·金 시대 변경에 설치한 ‘변호(邊壕)’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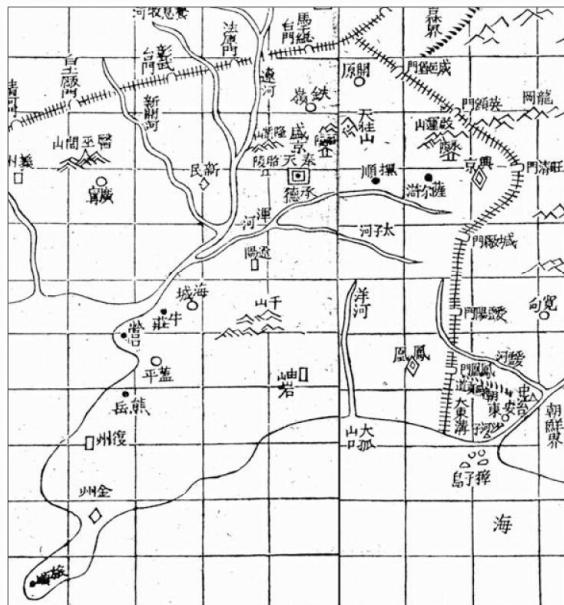
유조변의 성격을 둘러싸고 국가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단순한 지역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국경선이라는 러시아와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²⁰⁾ 또한 유조변의 선이 미치지 않는 흑룡강 유역은 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파악되어 유조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중국은 유조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흑룡강 유역도 누르하치가 17세기 원정을 통해 모두 그 곳의 종족들을 청건국의 주인인 만주인으로 편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지역과 민족 모두를 청

19) 중국에는 邊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만리장성으로 포함시키는 견해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성의 개념이 선으로 연결되는 것 이외에 점과 점으로 구성된 방어선도 장성의 범주에 넣는 등 장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 柳條邊을 연구한 최근의 성과로는 施立學的의 「東北柳條邊的封禁及對東邊道生態文化的影響」(『東北史地』, 2007年 第3期)과 「柳條邊伊通邊門」(『滿族研究』, 2006年 第1期), 張杰의 「柳條邊, 印票與清朝東北封禁新論」(『中國邊疆史地研究』, 1999年, 第1期), 「清代柳條邊對東北地區生態環境的作用及影響」(『史學集刊』, 2010, 第6期), 「清代的柳條邊」(『蘭臺世界』, 1999, 4)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과들의 공통점은 모두 청나라가 入關한 이후에도 柳條邊 설치지역과 나아가 흑룡강 지역도 청대의 강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의 강역 속에 넣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흑룡강 유역을 비롯한 봉금지대 상당부분의 토지와 여진부족이 청조의 영향력 밖에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유조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두만강 유역과 압록강 유역은 어떻게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정할 것인가. 백두산 정계비 설치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동위토문(東爲土門), 서위압록(西爲鴨綠)’으로 경계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정계비 이전의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는 명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월경(越境)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대와 마찬가지로 청대 압록강과 두만강은 명확한 양국의 국경선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유조변 이외에 청나라가 설정한 봉금지대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기도 있다. 나아가 만리장성 연장론과 관련하여 유조변의 형성과정과 그 성격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도 1】『盛京輿地備考』에 보이는 柳條邊(老邊). 유조변의 선이 나무 울타리로 표시되어 일반 장성과는 차이를 알려주고 있다. 명대 요동변장을 이어받았으므로 명대 변장 역시 장성과 다른 구조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결론- 만리장성 연장설의 허구와 대응

만리장성이 만주로 확장됨에 따라 고조선, 고구려, 발해, 요, 금 등 북방민족의 역사와 유적은 급속히 만리장성이라는 블랙홀로 흡수되고 있다.

요금시대의 계호는 만리장성과는 구조적으로 매우 다른 형태이고 군사방어를 위한 성격이 약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될 수 없음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구려의 성들을 만리장성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축성법,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등 정체성 확립을 통해 고구려성과 만리장성은 서로 혼재할 수 없는 다른 문화권의 유적임도 지적되어야 한다.

중국은 이미 명대 일개 전초기지에 불과하고 벽돌성의 흔적이 없던 호산산성을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으로 확정하고 압록강으로 만리장성을 연장시켰다. 만리장성이 압록강과 연결됨으로써 명과 조선의 국경선이 압록강이 되는 왜곡된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다시 러시아와의 관계변화에 따라 유조변을 만리장성으로 변화시켜 흑룡강, 길림 지역도 만리장성의 영향권 안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길림과 흑룡강 지역에 축조된 요금시대의 성과 고구려성들도 만리장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황당한 만리장성 연장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우선 명대 요동변장은 만리장성이 될 수 없으며 압록강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요동변장의 동단기점이라고 주장하는 강연대보 즉 현재의 호산산성에서는 벽돌식 장성이 출토되거나 선으로 연결된 장성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음을 통해 만리장성과 요동변장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학술적으로 연구된다면 요동변장을 계승하여 형성된 유조변을 만리장성의 연장으로 둔갑시키려는 중국의 주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동북공정을 시작할 당시 연구과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대 강역연구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설정되었고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 2008년 그 성과물로 양양의 『명대동북강역연구(明代東北疆域研究)』(길림인민출판사, 2008.9) 등 역대 강역을 언급한 연구물들이 속속 출판되었다. 역대 동북강역을 다루고 있는 출판물을 분석해 보면 그 공통점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명대 강역 연구가 학술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만주지역의 모든 왕조를 중국의 지방정권 내지 형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대

역시 요동의 여진족을 복속했다고 주장하며 길림성과 흑룡강성을 명나라의 강역 속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청대로 계승된 것으로 이해한다.

중국은 명이 요동변장을 설치한 후 요동변장 밖 여진족을 모두 귀속시켰으며 여진은 명에게 종속된 이(夷)라고 규정한다. 그들이 온 조공 즉 상업적 교역은 동등한 두 세력 간의 교역이 아니라 일종의 종속된 세력이 중앙에 바치는 세금 곧 공납(貢納)으로 이해하고 있다. 청대 역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흑룡강 유역을 포함한 전 요동을 석권했다는 주장을 통해 봉금지대 및 그 힘이 미치지 않던 흑룡강 유역도 청의 강역이라고 주장한다.

조선과 관련하여 중국은 두만강과 압록강은 이전부터 형성된 조선과 명나라의 분명한 국경선이었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명의 강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명대 만리장성이 압록강에 설치되었다는 주장으로, 명대 압록강에 설치된 강연대보가 그 증거로 제시되어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강연대보 즉 현재의 호산산성은 여진을 방어하는 일개 전초기지였고 일선의 벽돌성벽으로 연결되지도 않은 고립된 지역이었다.

당시 명으로 들어가는 책문은 봉황성에 있었으며 봉황성-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은 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국경지대였다. 당시에는 국경의 개념이 선이 아니라 지역 끝 면으로도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주장대로 압록강으로 만리장성이 연결되면 압록강이 전근대 시대 중국과 조선의 국경선이 되며, 한국사는 압록강을 넘지 못하는 축소되고 왜곡된 역사로 남게 된다. 압록강 대안의 국경지대 역시 중국의 강역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은 이러한 강역이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명나라의 요동지배가 매우 견고했다는 시각에서 요동연구를 시작했으며 요동변장 역시 견고한 방어시설로, 그 변장의 동쪽끝이 압록강에 다다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장 수축의 중심에 있던 요동도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중심의 강역론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만리장성 연장론임을 감안하면 역사왜곡과 장성공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명대 만리장성이 압록강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나름대로 역사적 상황과 유물발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나 투명하게 그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중국은 길림과 흑룡강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중국의 강역으로 삼았다는 이론을 확보하기 위해 영락연간 흑룡강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설치한 노아간도사(奴兒干都司)를 강조하고 있다.

노아간도시는 사료를 검색해 보면 영락연간 설치되었으나 흑룡강 유역에 상설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군사를 이끌고 흑룡강 유역을 순시한 기구에 불과하다. 더구나 영락제 사후 수세적 방어전략으로 전환되면서 노아간도시는 정통연간을 전후하여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

한 노아간도사가 여진지역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 군사기부로 재평가함으로써 명의 판도가 흑룡강

에 이르렀고 이것이 그대로 청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명대 요동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던 여진세력은 명왕조의 기미체제에 종속된 세력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조선과 관련하여 중국은 두만강과 압록강은 이전부터 형성된 조선과 명나라의 분명한 국경선이었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명의 강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중국은 만리장성 연장론 이외에도 한반도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만주의 역사를 침탈하기 위한 많은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근세 명과 조선, 그리고 여진의 관계에서 여진 초무에 적극적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던 조선이 여진인에게 관직을 내린 것은 실질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결코 조선이 여진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더불어 홍무연간 설치하려한 명나라의 철령위(鐵嶺衛)는 그 위치가 강원도 북부로, 비록 설치가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철령위 설치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북부는 원래 중국의 행정구역이었으며, 조선 세종시기 북방으로 진출한 이후에야 비로소 압록강과 두만강이 명과 조선의 국경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진인들은 명나라의 관할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왜곡된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관련된 사건들을 미시적이고 치밀하게 연구하여 중국 주장의 허구를 파악해야 한다. 만리장성 연장론을 극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은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추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료를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요동변장의 바깥 지역은 명의 직접적인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무관도' 지역이었으며 요동변장은 여진 몽골과의 국경선이었음을 고증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청대 봉금 지역 역시 양빈의 『유변기략』에서 밝히고 있듯이 봉금지대는 무관도 즉 청에게 종속된 지역이 아니었음을 추적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요동변장을 둘러싼 만리장성 동단기점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①만리장성의 동단기점

에 대한 재고(再考), ②두만강·압록강 국경설에 대한 비판, ③요동변장 국경선으로써의 성격고찰, ④요동도사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재평가, ⑤명과 여진 종속관계의 재검토, ⑥명대 강역 범위의 재설정과 만주역사가 중국 지방정권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극복 등 많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만리장성 연장론 뒤에는 분명 중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 호산산성에 당시 있지도 않았던 대규모 벽돌장성을 수축하고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으로 삼으려는 중국의 입장 뒤에는 요동변장과 요동괄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명과 역사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호산산성의 축조를 통해 조선과 명의 국경을 압록강으로 고착시켜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명나라의 강역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며 한국사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외에도 중국이 호산산성을 동단기점으로 삼고 요, 금, 고구려의 성을 만리장성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히 장성의 길이를 늘이는 것 이상으로 만주역사의 중국화, 명왕조의 요동에 대한 지배력의 강조, 노아간도사의 흑룡강 진출과 강역화, 명의 여진지배 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만리장성이 만주로 확장됨으로써 만주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 간의 갈등과 변경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중요한 단서가 마련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그들의 장성연장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奉天通志』
- 彭勇. 2009. 『明代北邊防禦體制研究』中央民族大學.
- 魏志江. 2006. 『中韓關係史研究』. 中山大學出版社.
- 周遠廉. 1981. 『清朝開國史研究』. 遼寧人民.
- 林榮貴 主編, 『中國古代疆域史』上·下 4卷本, 黑龍江教育出版社, 2007.
- 黑龍江省哲學社會科學院第三室譯, 『滿洲人在東北-十七世紀-』, 商務印書館, 1976.
- 劉謙, 『明遼東鎮長城及防禦考』, 文物出版社, 1989.
- 景愛,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2006.
- 佟冬 主編, 『中國東北史』 4, 吉林文史出版社. 1998.

- 楊賓, 『柳邊紀略』(遼海叢書本)
- 林榮貴 主編, 『中國古代疆域史』 下卷, 黑龍江教育出版社, 2007
- 黑龍江省哲學社會科學院第三室譯, 『滿洲人在東北-十七世紀-』, 商務印書館, 1976.
- 南義鉉,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江原大學校出版部, 2008.
- 柳在春외 역, 『長城의 中國史』, 강원대출판부, 2008.
- 한성주,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金宣旼, 「擁正-嘉靖年間 莽牛哨 事件과 淸-朝鮮 國境地帶」 『中國史研究』 제71집, 2011.
- 南義鉉, 「중국의 명대 동북강역 연구성과와 문제점 분석」, 『인문과학연구』 제22집,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09.
- 南義鉉, 「16-17세기 여진의 성장과 요동변경지대 성격연구」, 『동북아역사논총』 제34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南義鉉, 「遼東都司 對外膨脹의 限界에 대한 考察」, 『明清史研究』 제27집, 명청사학회, 2007.
- 孫春日, 「淸初 柳條邊牆의 건축과 그 역할」, 『白山學報』 제92호, 2012.
- 柳在春, 「15세기 명의 동팔참 지역 점거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제18집, 조선시대사학회, 2001.
- 정병진, 「入關前 淸의 朝鮮에 대한 三色人 刷還要求」 『明清史研究』 제37집, 명청사학회, 2012.
- 정혜중, 「광서연간(1875-1908) 동북관리와 1907년 동삼성 설치-동북봉금지대의 내지화-」, 『중국학보』 제54집, 중국학회, 2006.
- 한성주,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女眞 ‘藩籬·藩胡’ 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제41호, 고려사학회, 2010.
- 賈文華, 「淸代封禁東北政策研究綜術」, 『綏化學院學報』, 2006.12.
- 馬平安, 「淸末淸廷封禁政策轉變與東北地區的移民實邊」, 『遼寧教育學院學報』, 1999.1.
- 施立學, 「東北柳條邊的封禁及對東邊道生態文化的影響」, 『東北史地』, 2007년 제3기.
- 劉麗麗, 「試論淸廷在乾隆朝以來對東北的政策」, 『黑河學刊』, 2009.7.
- 張杰, 「淸代鴨綠江流域의 封禁與開發」, 『中國邊疆史地研究』, 1994.
- 張杰, 「淸前期對鴨綠江封禁區의 管轄」, 『中國邊疆史地研究』 2004.



Abstract

A Project to Extend the Great Wall of China.

Eui Hyeon Na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Great Wall of China, Jiayuguan, Shanhaiguan. Amnokgang, Liutiaobian(柳條邊), Gojoseon, Buyeo, Goguryeo, Balhae, characters of Jiehao(界壕)

In China, the Great Wall is a symbol which represents the country. Its origin goes back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when each country constructed the wall to protect its territory. While China went through many Dynasties of Qin, Han, Sui, Tang, and Ming, the wall had continually been changed and maintained. Today it is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and become a symbolic remain of China as well as a tourist attraction.

The established theory of former researchers was that the Great Wall started from its west part, Jiayuguan and ended in its east part, Shanhaiguan.

Since the Great Wall project has started in 2005, Chinese government, however, announced around 2008 that the east end is the Yalu River, not the Shanhaiguan. Therefore, the wall became longer. Again in 2012, they made a public statement that remains of the Great Wall were found in Kirin, Heilong Jiang, and Xingang, making its whole length 21,000km.

Now that the geographical range of the wall included Manchuria and Xingang, their histories are also confined in the wall.

What would happen if the east starting point of the Great Wall was connected to Amnokgang and became longer? Not only dynasties which grew from Manchuria will be understood as local governments of China, but also Gojoseon, Buyeo, Goguryeo, Balhae will remain as its mere regions which had no national identity. That is to say, they were not independent nations, but regions which a government official appointed by the Chinese emperor had dispatched. Furthermore, Manchuria will be included traditionally in historical domain of China. Because its past dynasties (which insisted

that Han Dynasty constituted four districts, Tang Dynasty overthrew Goguryeo, Balhae was established by the Mohe, Nuzhen was conquered by Ming Dynasty, and the Qing Dynasty installed Liutiaobian(柳條邊) occupied Manchuria, the history of Manchuria will be that of China. At the hidden side of extending the Great Wall, there is an intention to change the history of Manchuria into that of China.

In order to rectify China's distortion of the Great Wall, hegemonism, historical misinterpretation about territory, we should understand the Great Wall above all. Chinese government is hiding its purposes which make Goguryeo and Balhae into local governments of China, fixation of border theory of Amnokgang and Dumangang, and checking North and South Korea while extending the Great Wall.

We should research Manchuria from this critical direct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we have to newly interpret Chinese territorial problems through investigating things as follows: a concept of the Great Wall, characters of Jiehao(界壕) during Liao and Jin Dynasty and Liaodong Defense Line in Ming dynasty, a possibility of Liutiaobian(柳條邊) which installed during Qing Dynasty and can be a part of the Great Wall, a premodern theory of border, a frontier between Joseon Dynasty and Ming-Qing Dynasty.

If we solve the Chinese controversy of its territory based on our awareness of this problem, the Great Wall physically end in Shanhaiguan in a same way China insisted. We can reveal the truth that the frontier between Joseon Dynasty and China once cannot lie on Amnokgang and Dumangang, also Hushan(虎山) cannot be the eastern end point of the Great Wall. Furthermore, the history of Manchuria cannot be included as that of a local government of China.